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6면	도의회 의정대표협 업무연찬	1
강원도민일보	26면	박윤미 도의원 '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2
강원도민일보	07면	[동정] 정재웅(원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김희철 도의...	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함명준(위 왼쪽) 고성군수·김용복(고성·위 오른쪽) ...	3
강원도민일보	07면	[동정] 박관희 도의원	3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	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
강원도민일보	01면	알맹이 없는 협약만 줄줄이 ... 외자유치 빈손 파문	5
강원도민일보	04면	망상 2·3지구 기반시설 설계·착공 준비	6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 임기 내 직속기관 10곳 설립	6
강원도민일보	03면	춘천·원주·강릉시, 수도권 기업 1137억원 투자유치 성과	7
강원도민일보	02면	"학원비 늘면 출산율 떨어진다"... 강원 사교육비 전국 13위	8
江原日報	10면	"추위야 반갑다" 홍천강꽁꽁축제 준비 구슬땀	8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지방 이전 기업 지원 확대 바람직	9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인제 기적의 도서관 '잘한 일'	10
江原日報	19면	[사설] 청소년올림픽, 안전·보건 신경 써 최고 대회로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취업 원하는 60세 이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12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26



도의회 의정대표협 업무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도의장, 김기홍 부의장, 심영근 운영위원장, 김길수·박기영·박길선·심오섭·임윤순·최승순 의원등위원장단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정대표협의회의 업무연찬을 가졌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26

박윤미 도의원 '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박윤미(원주·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 의정분야 '2023년 대한민국 환경 ESG공헌대상'을 수상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대한민국 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을 열고 박 의원에게 의정분야 대



상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기회제공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을 제고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17



진중호(양양)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양양교육

지원센터 열리는 양양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7



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김희철 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춘천시보건소 별관에서 열리는 2023 춘천시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안을 살펴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17



함명준(위
왼쪽)고성
군수·김용
복(고성·
위 오 른

쪽)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이지영 (비
례) 도의원은 20일 오
후 5시 소노팜 델피노
에서 열리는체육인의
밤 행사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13



홍성기(홍
천) 도의
원은 20일
오전 11시
크리스탈

컨벤션웨딩홀에서 열
리는 홍천군인삼경작
인협의회제 18차 정기
총회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7



박관희 도
의원은 20
일 오후 3
시 스카이
컨벤션에

서열리는특별한송년
콘서트에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19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 도의원은 20일 오후 3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2023 특별한 송년 콘서트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0일 오후 5시 고성 소노캄 델피노 그랜드볼룸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2023년 고성군 체육인의 밤에 참석.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찬흥(춘천) 도의원은 20일 오후 1시 삼척 대명썰비치에서 열리는 2023 국제 수소 포럼에 참석.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춘천시 보건소 별관에서 열리는 2023 춘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0일 오전 11시 홍천 크리스탈컨벤션웨딩홀 4층에서 열리는 홍천군 인삼경작인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20일 낮 12시30분 원주 웨딩타운 3층에서 열리는 2023년 원주시의회 송년회에 참석.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양양교육지원센터 2층 현산관에서 열리는 2023년 양양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1

알맹이 없는 협약만 줄줄이... 외자유치 빈손 파문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구역지정취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 실적은 빈손에 그치고 있고, 각 지구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취소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제북한관광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이 발표됐던 망상1지구는 사업시행자(동해E-City)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해당 사업자 취소, 이어 해당 사업자의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

2013년 2월 청사진 발표 불구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소송

북평·망상지구 면적까지 축소

다.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전임도정 당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사법리스크까지 떠안으며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부진 등 여전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지정됐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최문순 전 지사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시작됐다.

올해로 지정 10년을 맞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설립 1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 현황

• 2013년 2월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 2013년 4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015년 2월

캐나다 던디그룹 360 동해개발공사(주), 시행자 지정

•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안(총사업비 4조 1393억원) 확정

• 2017년 8월

캐나다 던디그룹, 사업 포기

• 2018년 10월

동해E-City, 망상 캐나다 국제학교 설립 발표

• 2022년 5월

미국 뉴욕 사립 가든스쿨, 망상1지구 양해각서 체결

• 2023년 4월

김진태 도지사, 망상1지구 사업자 특혜 의혹 감사 지시

• 2023년 5월

도감사위, 신동학 전 통장청장·최문순 전 지사 등 고발

• 2023년 8월

동해E-City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망상을 비롯한 각 지구에 외자유치 계획 등이 줄줄이 발표되며 양해각서 체결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확정된 외자유치는 없는 상태다.

더욱이 북평지구와 망상지구는 당초 계획된 지구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 중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의 투자가 현실화될 듯했으나 해당 그룹은 2017년 망상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등 외자유치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2017년 8월엔 동해E-City가 캐나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후속으로 발표했지만, 이 사업 역시 무위에 그쳤다.

▶ 4면으로 계속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4

망상 2·3지구 기반시설 설계·착공 준비

리스크 산재 투자처 물색 난항 전망
내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

▶ 1면에서 계속

망상지구 사업을 맡은 동해E-City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최문순 도정과 김진태 도정에서 송곳 감사를 받았다. 결국, 올해 8월 동해E-City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망상 글로벌 리조트 2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최근 완료, 3지구와 함께 관광·휴양시설 및 오피스텔, 전시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와 동자청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고 있다. 도와 동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대체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 경

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 등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망상지구에 대한 국내외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자청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투자유치를 이룬 건 없다. 다만, 현 도정 취임 이후 북평지구에 8개 기업을 유치했다"며 "망상 2·3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설계 및 착공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새해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심영섭 청장은 "이번 명칭 변경이 오랜 기간 담보 상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변화의 시작이 되길 염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개발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심 청장은 논란을 낳은 망상1지구 이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소송에 대해선 "법적 다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4

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 임기 내 직속기관 10곳 설립

강원특수교육원 등 2026년 내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700억원을 들여 신경호 교육감 임기 안에 직속기관 시설 10곳 건립을 추진한다.

19일 도교육청은 (가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호분원과 강원특수교육원,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등 10개 사업이 신 교육감 임기 내인 2026년 6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춘천에 본원이, 원주와 강릉에 각각 분원이 이어지는 강원특수교육원은 한 곳당 1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모를 진행해 내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월 착공 예정이다.

현재 설계 계약이 진행 중인 교직원수련원장호분원은 총 사업비 19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춘천교육문

화관 별관 개축 사업은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내년도 신규사업인 속초교육문화관 개축(175억원)과 원주·강릉 유아놀이체험장(각 199억원)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며 사임당 교육원 생활관 개축(102억원), (가칭)강원온라인학교(128억원)도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03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빅3' 지역이 19일 강원도민회관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춘천·원주·강릉시, 수도권 기업 1137억원 투자유치 성과

도, 서울서 투자유치설명회 성료
김 지사 "파격적 세제 혜택" 강조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빅3' 지역이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와 춘천, 원주, 강릉은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전문기업인 미코세라믹스, 의료기 및 화장품 생산기업인 비알팜,

보톡스 제조기업인 에이엔티파마와 1137억원 규모의 투자 및 신규 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1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강원도민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여문원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 김석준 비알팜 대표이사, 정도영 에이엔티파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

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나 이전 기업에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만들어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준비된 강원'을 강조했다. 이세훈 > 관련기사 7·8·10면

2023 12 20 ()

강원도민일보

“학원비 늘면 출산율 떨어진다”...강원 사교육비 전국 13위

도내 1인당 월평균 42만1000원
출산율 0.968명 전국3위 ‘양극화’
한경협 “사교육 수요 차단책 필요”

서울 등 수도권은 높은 사교육비와 낮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강원도는 낮은 사교육비와 높은 출산율을 보여 교육과 출산율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학교급 및 시도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 3위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수준은 낮고 합계출산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합계출산율 출처:통계청, 단위:원

순위	지역	사교육비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2022년 기준)
1	서울	70만7000	0.593(17위)
2	대구	54만7000	0.757(14위)
3	경기	54만3000	0.839(11위)
4	세종	51만9000	1.121(1위)
5	부산	50만2000	0.723(16위)
6	대전	50만	0.842(10위)
7	인천	49만5000	0.747(15위)
8	광주	47만5000	0.844(9위)
9	울산	46만8000	0.848(8위)
10	충북	43만4000	0.871(7위)
11	제주	42만8000	0.919(5위)
12	충남	42만4000	0.909(6위)
13	강원	42만1000	0.968(3위)
14	전북	41만8000	0.817(13위)
15	경남	41만3000	0.838(12위)
16	경북	40만5000	0.930(4위)
17	전남	38만7000	0.969(2위)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은 사교육비 38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사교육비가 높은 대구(54만7000원), 경기(54만3000원)의 경우도 각각 합계출산율은 전국 14위, 11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사교육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40만5000원)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한경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0%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973만원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3 12 20 ()

江原日報

“추위야 반갑다” 홍천강뽕뽕축제 준비 구슬땀

【홍천】11월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이상기온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홍천강뽕뽕축제가 최근 한파에 힘입어 개최 일정을 확정하는 등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제12회 홍천강뽕뽕축제’를 2024년 1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홍천강변 일대에서 열기로 했다.

이상고온에 개최 불투명
한파 덕분에 축제 일정 확정
내년 1월5~21일 열기로

당초 이번 축제는 지난해 쏘아진 폭우로 축제장 제방이 유실되며 개장일 연기 등 행사계획 변경이 검토됐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 개막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있어 보강공사가

가능한데다 폭우 이후 한파가 이어지면서 홍천강 일대가 30cm 이상 두께로 결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올 겨울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군과 재단은 20일 오후 2시 ‘제12회 홍천강 뽕뽕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안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사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축제는 ‘홍천 인삼과 송어의 운명적 만남’을 슬로건

으로 진행한다. 인삼송어를 활용해 타 시·군의 유사 겨울축제와 차별화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관광객을 모집하고 주민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은 △낙시체험행사(얼음낙시, 루어낙시, 가족삼내·실외낙시, 맨손인삼송어잡기) △관매행사(홍천 명품 농특산물, 낙시용품) △놀이시설(얼음썰

매, 어린이체험장) △먹거리(회센터, 향토음식점, 실외음식점) △홍보행사(홍천군 관광투어, 홍천맛집투어, 홍천기업홍보관) △부대행사(무대공연, 풍물시장·야시장) 등이다.

재단 관계자는 “폭우에 따른 보강공사는 이를 내 완료될 예정이며 영하권의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축제를 개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 23

지방 이전 기업 지원 확대 바람직

-정부 최대 200억으로 상향... 혜택 기업 늘려야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시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이 계획은,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기업들이 대거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와 기초단체가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혜택뿐 아니라 세제 감면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고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계획(안)'은, 기존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날 산업부의 제도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추었습니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환영할 일입니다.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돼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의지입니다. 지원과 혜택을 늘리더라도 업체의 자발적 이전 계획이 없다면 소용 없는 지원 정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인재 채용과 생활 기반 시설, 교통·교육 여건 등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더욱 파격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0 ()

/ 23

인제 기적의 도서관 '잘한 일'

-반년 만에 4만5000여명 방문, 공동체 성장 바람직

'살아있는 공공도서관'을 슬로건으로 내건 인제군 운영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반년도 되지 않아 4만5000여명이 직접 찾았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9만명에 육박하면서 독서·학습·문화·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올 6월 개관 이후 개최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은 38회에 달하고 주민 참여율도 매우 높았다는 보도입니다. 책을 집필한 작가와의 대화는 물론 음악회, 인형극, 조각전 등을 다채롭게 마련함으로 지역공동체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목적 공간인 사랑채와 동아리실 이용 횟수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114회에 걸쳐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지역 내 작은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톡톡히 기여를 한 것입니다. 10, 11월엔 인제군 3개면 17개리 6000여명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내린천댐 건설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인제주민운동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기획해 선보이며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주민 간 소통을 활발히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도서관 가입 회원도 20~50대가 70%를 차지합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서가와 서고 중심으로 설계된 관리자 중심의 폐쇄적인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문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중앙의 원형 디자인에 계단식 열린 서가, 열린 극장 등으로 개방감과 쾌적함을 주는 동시에 친밀하게 소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만3000여권의 장서는 물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실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해도 운영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엔 인제군이 '도서관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 중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성장하고 의견소통이 활발해지면 더 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을 배우기 위해 인접한 정선군과 양구군은 물론 경기도 고양시, 천안시의회 등에서 견학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각 시군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점검해야 합니다. 책만 갖추고 오후 6시면 불이 꺼져 캄캄한 올테면 오라는 식 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고령층 독서환경을 위해 노인열람실이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지식 및 문화의 허브이자 친근한 시민소통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용자 관점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2 20 ()

/ 19

청소년올림픽, 안전·보건 신경 써 최고 대회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안전과 보건에 신경 써 명실상부한 최고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열리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인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지역적 노력을 넘어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청소년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돌이켜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작금의 상황은 국민적 성원과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같

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수가 두 번 다시 반복돼선 곤란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선수범은 물론이

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의 전방위적인 홍보 노력과 한 치의 누수도 없는 준비 태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 대회로 각국 선수들의 부모님들과 스포츠계, 교육계, 정관계 인사 등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2주 이상 한자리에 모이고 머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올림픽의 중요성은 다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은 하루하루가 성공개최를 위한 골든타임임을 직시하고 최고의 글로벌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청소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시와 평창·정선·횡성군이 자주 소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
경기장 시설 철저한 안전 점검·한파 대비를
강릉시, 평창·정선·횡성군 자주 소통해야

협의회’를 갖고 국민의힘, 조직위, 개최도시 자치단체장과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홍보 대책 등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최근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감염병, 폭설, 한파 등이 위험 요소로 거론됐다. 당장 협의 결과 정부는 선수촌·경기장 등 13개소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응급 이송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감염병 현장대응팀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127억원(국비 97

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해 대회 개최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

는 점이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철저히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올림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경기장 시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과 각 경기장 그리고 선수촌의 의료진 배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이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江原日報

2023 12 20 ()

/ 19

취업 원하는 60세 이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올해 취업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85만7,400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은 27만5,800명(32.0%)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0~40대 취업자를 넘어 50대 취업자 다음으로 풍부한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국 60세 이상 취업자 수도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6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4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할 전망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올 5월 641만4,000명으로 40대보다 10만명 많았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져 10월 27만명, 지난달에 22만6,000명 각각 차이가 났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수치 역전은 확실시된다. 도내의 경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이미 4년 전 4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다.

문제는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확대는 양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온 한계를 안고 있다. 노인을 위한 등하교 지킴이, 환경 공공근로 등 공익형 일자리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노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곧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일자리

구조 변화와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놀거나 가난한 노인이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양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험과 능력, 일할 의욕도 넘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일하는 노년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한다. 이들의 취업과 근로에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퇴직 후 새 일을 하거나 찾고 있는 60세 이상이 늘고 있다면 기업들은 60세 정년 이후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출산을 제고 및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모자라는 노동력을 수혈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노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귀중한 인적 자산의 활용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다.